

‘강진 반값여행’ 국가 정책 반영... ‘전국화 모델’



강진의 해당화를 즐기고 있는 여행객들.

사진제공=강진군청

16개 지자체서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 시행 강진군민도 참여·혜택...“대한민국 관광정책 선도”

강진군에서 시작된 ‘반값여행’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확산되며 대한민국 관광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때 경비의 절반을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여행)’ 시범사업에 예산 65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전국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강진군을 포함한 16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대상지는 강원 평창군, 영월군, 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 영광군, 해남군, 고흥군, 완도군, 영암군, 경남 밀양시, 하동군, 함천군, 거창군, 남해군이다.

이 사업은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개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강진군에서 시작된 반값여행은 대통령 의 언급과 정책 확대 방향에 따라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으로 국가 정책화됐다.

환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안에 해당 지역 내 가맹점 또는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강진을

찾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강진군민도 참여할 수 있다.

강진군민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visitkorea.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한 지역을 확인한 뒤, 선정된 지자체에 사전 신청 후 여행을 다녀오고 숙박·식사 등 여행경비를 증빙하면 사용 금액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강진 반값여행은 지방소멸위기와 지역 경제 침체 속에서 강진군민의 간절함과 공직자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이 정책은 지역을 살리는 1등 공신으로 자리잡은 데 이어 대한민국 관광과 경제를 살리는 정책으로 확산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만든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강진은 앞으로 대한민국 관광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진도, 청년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 마련

17일까지 의견수렴...청년 4세대·신혼부부 14세대

진도군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한 청년공공임대주택의 입주기준안을 공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건립하고 있는 청년공공임대주택은 올해 7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총 18세대가 입주할 수 있고 전용면적 29㎡ 4세대, 60㎡ 14세대로 조성된다.

진도군은 청년에게는 29㎡형을, 신혼부부에게는 60㎡형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진도군에 주소를 두었거나 입주 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입이 가능한 청년과 신혼부부다.

소득 요건은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

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자’로 한정해,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임대 조건은 청년(29㎡형)의 경우 보증금 150만원과 월 임대료 10만원이며, 신혼부부(60㎡형)는 보증금 300만원과 월 임대료 20만원이다.

거주 기간은 청년의 경우 최대 4년이며, 신혼부부는 자녀 출생 시 최대 7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 정부 또는 지자체가 기존에 추진한 주거 지원 사업의 수혜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추첨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입주기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의견을 작성해 오는 17일까지 진도군 인구정책실로 우편이나 이메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세밀히 검토하고 반영해, 청년들이 진도에서 희망을 품고 정착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신안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입학생과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1004섬농업대학 입학식’을 가졌다. 사진제공=신안군청

신안, AI 접목 농업인재 양성 본격화

친환경농업·AI 마케팅 과정 신입생 79명 입학

신안군이 친환경 농업과 AI 기술을 접목한 미래 농업 인재 양성에 나섰다.

8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입학생과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1004섬농업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농업대학은 친환경농업과 AI농산물마케팅 2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총 79명의 신입생이 오는 12월까지 교육 받는다.

‘친환경농업 과정’은 재배 이로부터 자체 제조 실습은 물론 유기농업기능사 자격증 취득까지 연계한 심화 교육으로 구성됐다.

‘AI농산물마케팅 과정’은 최신 AI 기술을 접목한 유통 전략 수립과 스마

트스토어 운영, 라이브커머스 활용 등 실전 중심의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

군은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온라인 시장 경쟁력을 높여줄 예정이다.

입학식은 1부 입학 허가 선언과 대표선서, 격려사 등에 이어 2부에서는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농업 전문가의 특강이 진행되며 신입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숙현 신안군 농어촌진흥과장은 “입학생들의 도전이 실제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2123@

해남, 저소득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해남군은 청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을 실시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며,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2026년 1인가구 기준 154만원)이며, 원 가구의 소득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2026년 3인가구 기준 536만원)여야한다.

신청기간은 5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부터 월세를 소급해 지원한다.

해남=성정수 기자

영암, XR로 미래 직업 체험 ‘챌린지’

영암군이 XR 기술을 활용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XR 직업체험 챌린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상현실 환경에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미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자는 과학(천문학, 우주탐사), 의(의료교육), 공학(컴퓨터, 자동차, 기계), 우주항공(드론, 우주탐사), 체육(경기 시뮬레이션), 예술(음악, 뷰티, 요리) 등 6개 분야의 직업을 XR 콘텐츠를 활용

해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교육은 18일 영암 달빛정충마루와 삼호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각각 진행되며, 영암읍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삼호읍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영암군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회차별 3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 문의는 영암군 진로진학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영암=한홍국 기자

초대석

김경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균형 이루는 데 힘 쏟겠다”

초대석

김원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위원장
“문화중심도시 광주, 시민 지지가 완성의 힘”

이달의 CEO

정태영 스톨액션 대표
페어영, 가방으로 재탄생 해양쓰레기 자원 순환

화제의 인물

오국석 (주)야생엔터비 대표
꿀벌로 일군 50년, 한국 양봉의 길을 바꾸다

2026.04 vol. 155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략도인

구독문의: (062)370-7080 광고문의: (062)370-7070

전남의 보물섬

여수 손죽도
진달래 향에 봄소식 신고
화전에 봄의 풍류 담았다

포커스

여수산단 생산 차질 현실화...
중등 리스크 직격탄

커버스토리

윤호열 전 전남바이오진흥원장
전남 바이오 ‘제2창업’
국가 전략산업 도약 발판 마련